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마식령스키경기-2016》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마식령스키경기-2016》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경기장에 도착하시자 선수들과 관람자들은 주체체육의 강화발전과 인민들의 문명한 생활을 위해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김일국 체육상으로부터 경기진행계획과 선수들의 준비정형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마식령스키경기-2016》을 보시였다.

먼저 한명씩 출발한 선수들이 6m 또는 15m까지의 간격으로 600m 구간에 설치한 수직개의 기문대를 실수없이 돌아내려 결승선을 통과한 기록을 측정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돌아내리기경기가 진행되였다.

선수들이 출발하여 수십m 직선주로를 지쳐내리다가 조약하여 비행한 거리를 측정하는 다음 순위를 결정하는 스키조약경기가 시작되자 경기장의 열기는 더한층 고



조되였다. 관람자들은 선수들이 아슬아슬한 공중 날기와 착지동작을 훌륭히 수행할 때마다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 1월에 스키협회가 창립되고 1965년에는 국제스키련맹에 가입하였다고 하시면서 세계적으로 스키운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그 기술도 급속히 발전하고있는데 맞

게 스키종목을 하루빨리 세계적 수준에 끌어올려 국제경기들에서 당당히 우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선수들이 너비 4~8m, 길이 10m 간격으로 600m 구간에 설치한 수직개의 기문대를 실수없이 돌아내려 결승선을 통과한 기록을 측정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크게 돌아내리기경기도 선수들의 드높은 경쟁속에 치렬하게 진행되였다.

스키경기의 절정을 이루는 내리치기경기가 시작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선수들의 폭발적인 활강경주를 보시면서 용감한 선수들의 모습이 정말로 인상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체육은 조국의 존엄을 떨치고 인민들에게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데서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역할을 한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체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별 방사포병중대사격경기와 길영조영웅 추격기련대 전투비행사들의 야간습격전투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별 방사포병중대사격경기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감시소에서 사격경기진행형식과 방법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경기를 시작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포병들의 화력복무동작을 바라보시면서 훈련을 가장 극악한 조건에서 강도높게 벌린것이 알린다고, 포병들은 실전과 같은 정황들을 조성하고 훈련하여 언제나 명중포탄을 날릴수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사격구령이 내려자 경기참가자들은 직진을 일격에 불바다로 만들 원수격멸의 의지를 안고 명중포성을 울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명중이라고, 포탄에 눈이 달린것 같다고, 포병들이 정말 포를 잘 쏜다고, 모두가 저격수수준에 당당히 올라섰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련합부대별 방사포병중대사격경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늘 진행한 포사격경기는 포병들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포사격의 명중률을 높이는데 기본을 두고 맡겨진 전투임무와 변화되는 정황에 맞게 신

속히 기동전개하고 정확한 사격체원준비관정과 명중사격을 할수 있도록 훈련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하는것을 체질화한다면 언제 어느때 명령이 내려도 명중포성만을 울릴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훈련에 대한 립장과 관점이자 조국통일대전을 대하는 립장과 관점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당이 제시한 훈련제일주의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갈데 대한 문제, 훈련에서 당정책화, 실전화, 현대화, 과학화, 다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훈련혁명의 중심고리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문제, 포병들을 한 등급이상의 높은 직무를 수행할수 있게 준비시켜 그 어떤 정황속에서도 원수들의 정수리에 명중탄만을 박는 백발백중의 명포수, 일당백포병대렬을 늘어나갈데 대한 문제 등 포병무력강화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올해는 일당백포병들이 울리는 포성으로 새해의 첫 대문을 열었고 한해의 마감을 장식한다고, 지휘관들과 포병들은 포병싸움준비완성에 커다란 힘을 넣고있는 당의 의도를 잘 알고 지는 해, 뜨는 달을 훈련장에서 맞고 보냄으로써 일당백포병의 명중포화로 남진의 길을 열고 전승의 경축포성을 높이 울리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길영조영웅추격기련대 전투비행사들의 야간습격전투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정류장에 나가시어 추격기들의 출격준비상태를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투비행사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12월의 하늘가에 울려퍼질 붉은 매들의 폭음소리를 생각하니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전투비행사들을 위해 마음쓰시며 사랑의 유혼교시를 남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떠오른다고, 전투비행사들이 날으는 항로는 장군님 가까이 가는 길, 장군님과 맺은 정을 피출처럼 간직하는 길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감시소에 오르시어 야간습격전투비행훈련진행략도를 보시면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으로부터 결심보고를 청취하시어 훈련을 시작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어둠속에서도 추격기들이 정확히 날고있는가를 손금보듯 볼수 있다고, 전투비행사들이 비행체제유지를 잘한다고, 비행지휘의 과학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다고 못

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목표들을 점타격하는 장쾌한 광경이 표시되는 영상표시장치를 보시면서 명중이라고, 야간이 아니라 대낮에 진행되는 훈련을 보는것만 같다고, 정말 통쾌하다고 호탕하게 웃으시며 박수를 크게 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어려운 야간습격전투비행훈련을 불의에 진행하였는데 믿음직한 우리 당의 하늘초병들은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출격할수 있게 준비되어있다는것을 과시하였다고, 불굴의 조국수호정신, 육탄자폭정신을 지닌 하늘의 결사대들이 있기에 조국의 하늘은 언제나 맑고 푸를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훈련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전투비행사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투비행사들이 당의 출격명령만 기다리며 낮이나 밤이나 조국수호의 하늘길을 날고있기에 오늘과 같은 불리한 정황속에서도 맡겨진 비행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하시면서 길영조영웅추격기련대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고 대를 이어 길이 전해갈 하늘같은 은덕을 베풀어주시였다.

본사기자

# 희세의 천출명장을 높이 모시여

대를 이어 위대한 선군령장, 희세의 천출명장을 모신것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행운이고 긍지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 12월의 날과 날을 맞고 보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화국을 군사강국으로, 인민군대를 무적강군으로 위용떨치도록 하신 그이의 고귀한 생애와 불멸의 업적이 우렁이 떠 오른다.

12월 24일, 이날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모시여 우리 인민의 존엄과 자주권은 더욱 굳건히 수호될수 있었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로 다져질수 있었다.

한 나라, 한 민족에게 있어서 탁월한 명장을 모시는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를 공화국의 지나온 력사가 잘 말해주고있다.

공화국은 령토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은 나라이다. 이런 나라가 세계무대에서 제노라하는 미국과의 대결에서 어떻게 매번 승리의 통장훈을 부를수 있는가.

여기에 그 대답이 있다.

《한쪽에는 강대한 군력을 가지고있는 (초대국), 세계 현병이 서있고 다른 한쪽에는 작은 나라가 그 거대한 괴물과 마주서서 1:1로 대담하게 대결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인간의 강의성이 검증되는 순간이다. 하지만 김정일령도자의 마음속에는 단 한점의 공포나 우려도 없다. 그이는 진정 바위처럼 굳센 강철의 의지와 정신을 지니신 위인이시다. 국가의 진두에 김정일령도자와 같은 담대하고 정치도덕적 원칙을 지닌 지도자를 모신다면 나라와 인민은 마음을 놓을수 있다.》

한 외국인의 말이다.

그의 말대로 위대한 선군령장이시며 천출명장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여 조선은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제재와 봉쇄, 군사적압살책동속에서도 조금도 끄떡없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자기 의지대로 국

가건설을 힘차게 밀고나갈수 있었다.

순경은 영웅을 감추고 역경은 영웅을 드러낸다는 말이 있다. 그이께서는 최고사령관의 중책을 지니시고 나라의 정사를 돌보신 나날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최악의 역경이 겹쌓인 나날들이었다. 민족대국상후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은 사면팔방에서 압살의 도수를 전례없이 높였고 조선은 얼마 안가서 《붕괴》될것이라고 떠들었다.

항시적으로 침예한 정세가 가세지지 않고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 시련의 나날 장군님께서는 나라와 인민의 운명, 겨레의 운명을 수호하시려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였다.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 국사로 내세우시고 나라의 군력강화를 위해 초도와 판문점, 철령과 오성산, 지혜산, 1211고지, 대덕 등 조국방선의 전초기와 고지들을 찾고 또 찾으신 그이의 애국헌신의 장정은 공화국을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울수 있게 한 근본원천으로 되였다.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 미국의 패권에 눌리워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월가의 바람에 휘둘러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할



인민군부대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때 세계에서 《유일초대국》이라 자처하는 미국과 당당히 맞서 싸워 한반도 패하지 않고 련승을 이룩할수 있는 비결은 위대한 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데 있었다.

만전쟁과 발칸전쟁을 통해 기고만장해진 미국은 그 여세를 몰아 조선반도에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1993년에는 《핵위기》를, 1995년 이후에는 《미사일위기》를 그리고 1998년에는 《지하핵시설위기》를, 2002년에는 또다시 《핵의혹》을 떠들며 위기를 조성하였다. 새로운 조선전쟁각본들을 짜고 실전에 옮기려고 그 몇번, 그러나 그때마다 주저앉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은 조선에 위대한 선군령장이 계시고 막강한 군력이 있었

기때문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고 강성부흥의 앞날을 확고히 담보하시는 그이의 위인상에 대해 이전 쏘련의 국방상 드미트리 야조브는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비범한 군사적지지와 지략, 해박한 군사지식에 백전노장들도 탄복하고있다. 나도 군인생활로 늙어왔지만 레외로 될수 없다, 김정일령도자처럼 정치적수령으로서의 품모를 완벽하게 갖추고있으면서도 령장으로서의 자질까지 겸비하여 문무에 정통한 위인은 일찌기 없었다고 존경심을 토로하였다.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의 생산과 같은 대경사도, 나라의 모습을 몰라보게 변

한평생 걸고걸으신 선군혁명의 길을 끝까지 이어나갈것이라고 하시며 멀고 험한 전선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그이께서 이어가신 전선시찰의 날들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합동타격훈련을 지도하신 날도 있고 적아대결의 최전방인 판문점초소를 시찰하시어 병사들에게 무비의 용맹을 안겨주신 날도 있다. 어뢰정에 오르시여 해병들과 함께 사나운 풍랑길을 헤치시며 전술훈련을 지도하신 이야기도 있고 침략세력이 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던 때에 적진의 코앞에까지 나가시여 전군을 조국결사수호와 싸움준비강화로 산악같이 불러일으키신 사실도 있다. 위협천만

한 최대열점지역의 파도사나운 배길과 철령의 새벽안개, 오성산의 험준한 산악은 오늘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헤쳐가신 조국수호의 선군장정을 전하고있다.

인민군부대들과 초소들을 찾으시여서는 군인들에게 별적의 의지가 담긴 기관총과 자동보총, 쌍안경을 안겨주시고 전군의 훈련장들마다에서 단숨에의 훈련열풍을 일으켜주신 선군령장의 탁월하고 세심한 손길이 있어 조선인민군은 만능의 전법과 백승의 경험을 소유하고 그 어떤 현대전에도 능히 대처할수 있는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완비한 무진막강한 불패의 강군으로 그 위용을 떨치고있는 것이다.

지난날 우리 겨레가 당한 망국노의 설움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하시려고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방력강화에 큰 힘을 넣으신 그이께서는 올해에만도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 성공에 이어 신행대구경방사포 시험사격,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켓트발사훈련, 탄도로켓트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 시험, 대출력고체로켓트발동기 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 핵무기병기화사업 등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도하시면서 고도로 정밀화, 지능화된 첨단무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오늘 공화국의 국방력은 그 어디에 있는 적도 단매에 짓부실수 있는 위력한 전략무기들을 완비함으로써 미제가 핵을 저들의 독점물로 여기며 핵을 쥐고 공화국을 위협공갈하던 시대를 영원히 종식시켰다.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드시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적대세력의 온갖 도전을 단호히 짓부시며 민족의 운명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공화국은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며 선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 달 리 는 《 눈 무 지 》

간밤에 300mm나 되는 눈이 내려 소복단장을 한 병영구내에 이른아침 《눈무지》가 나타났다. 앞차창만 아니라면 그 형체를 가려볼수 없는 《눈무지》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서 타고오신 차였다. 중대군인들은 그이를 에워싸고 환성을 울리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을 둘러보시며 최전연초소를 지켜 수고하는 군인들이 보고싶어 찾아왔다고 하시였다. 이어 그들의 군무생활 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시간을 내기 바빴지만 최전연초소를 지키는 동무들이 나를 더 기다릴것 같아

이곳으로 떠나왔다고 하시며 밖은 캄캄하고 눈이 많이 내려 길은 험하였지만 최전연초소로 달리는 나의 마음은 더없이 기쁘고 가벼웠다고 하시였다.

사실 그이께서는 중대를 찾은 시기전 어둑새벽에 한 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였는데 그때에도 발전소로동자들은 구내에 들어서는 차를 큰 눈무지가 굴러오는 것으로 착각하였었다.

언제나 군인들속에 계시였기에 장군님께서서는 한해가 저무는 무렵에도 현지지도의 길을 인민군구분대에 대한 시찰로 오르신것이였다. 그날은 지금으로부터 열여섯해전 12월 27일 아침이였다.

## 최 고 사 령 관 의 집 뜰 락

주제 101(2012)년 8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313대련합부대 지휘부와 제894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철령을 넘어 최전연에 위치한 대련합부대와 관하군부대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대련합부대와 군부대의 작전전투방안과 작전계획을 검토하시고 최고사령부의 전략적기도에 맞게 원만히 세워진데 대하여 지적하시고 싸움준비에서 기본인 훈련에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등 전투력강화와 군인생활개선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해당한 대책

을 세워주시였다.

그날 장군님께서 낮에도 녀고 밤에도 녀었으며 새벽에도 녀으신 철령의 강행군길이 있어 조국이 수호될수 있었으며 우리 조국은 군력이 강한 선군조국으로 위용떨칠수 있게 되였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는 동무들이 지켜선 전선을 집뜨락으로 생각한다고, 앞으로 자주 찾아오겠다고, 언제나 철령을 잊지 않을것이며 자신의 마음속에는 대련합부대장병들이 소중히 자리 잡고있다고 하시였다.

본사기자

## 통 일 에 국 으 로 빛 나 는 고 귀 한 생 애

항일의 녀성영웅으로, 백두의 녀장군으로 겨레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김정숙녀사의 고귀한 생애에 외세에 의하여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위하여 자신의 한몸을 초발처럼 불태우신 무한한 헌신의 자욱도 새겨져있다.

일찌기 10대의 어린 나이에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령도하시는 항일전에 나서신 김정숙녀사께서 바라신것은 전조선의 독립과 삼천리강토위에 일떠설 부강조선이였다.

녀사께서는 나라가 해방된 후 외세에 의해 강요된 민족분열을 두고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였다. 녀사께서는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 전조선을 해방하자고 투쟁했지 나라의 절반 땅만 해방하자고 그 고생을 했겠는가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독립을 이룩하기전에는 그 누구도 본분을 다했다고 말할수 없다고 하시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불같은 생을 사시였다.

주제 36(1947)년 4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댁에는 만경대 조부모님을 비롯한 일가

친척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은적이 있었다.

그때 한 친척분이 녀사께 왜 녀사건 친척분은 아무도 오시지 않았는가고 하며 이 제라도 편지를 내어 다 오게 하자고 하였다.

해방의 날을 보지 못한 채 너무도 일찍 세상을 떠난 부모님과 오빠, 동생은 비록 올수 없지만 민족수난의 그 세월 남의 집에 맡겨두었던 조카도 그렇고 녀사께서 찾으실 일가 친척분들은 있었다.

그러나 녀사께서는 조국을 통일한 후에 형제들을 모두 찾겠다고, 통일된 강산에서 이렇게 모두 만나게 되면 더 좋지 않겠는가고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민족분열의 위기가 닥쳐온 그때 갈라진 일가친척들보다 먼저 분열된 민족의 아픔을 생각하시였던것이다.

녀사께서는 북녘에 펼쳐진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실 때에도 언제나 외세의 강점하에 신음하는 남녘겨레를 생각하시였고 한창의 사진을 찍으시는것도, 새 옷 한벌 해입으시는것도 통일된 다음으로 미루시며 굳이 사양하군 하시였다.

그 나날 녀사께서는 외세에 의하여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하루빨리 가시기 위하여 북과 남이 단결하고 자주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통일애국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다.

4월남북련석회의가 하루하루 다가오던 어느날이였다.

한 일군을 만나신 녀사께서는 이번에 김구선생과 김규식선생을 비롯한 민족주의자들도 참가한다고 하시면서 외세를 반대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온 민족이 굳게 단합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김일성장군님을 받드는 이 나라 민족이라면 누구나 운명을 함께 해야 할 혈육이며 친지라고 하시며 평양에 온 남녘의 애국적인 민주인사들을 비롯한 각계층 사람들을 열화같은 동포애로 따스히 대하신 녀사이시였다.

살뜰한 인정미와 해박한 식견, 열렬한 조국애와 숭고한 동포애를 지니신 김정숙녀사의 인품에 끌려 백초 홍명희, 몽양 려운형, 백범 김구를 비롯하여 남녘의 애국인사들과 동포들이 민족단합과 통일의 길에서 그이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본사기자 리경월

군 력 강 화 의 길 에 서

# 일심단결의 위력을 과시한 뜻깊은 한해

2016년의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돌이켜보면 세계적으로 복잡다단했던 이 한해동안 도처에서 어지러운 분쟁과 다툼의 소용돌이가 그칠새 없었고 모래알처럼 흩어진 피난민들의 구슬픈 한숨소리가 높아만 갔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사회정치적 안정이 최대로 보장되고 령도자와 인민의 일심단결이 더욱 강화된 공화국에서는 군대와 인민이 한목소리로 터치는 신념의 목소리가 온 한해동안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원수님 따라 하늘땅 끝까지!

대를 이어 태양복, 장군복을 누려가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령도자와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해갈 군대와 인민의 신념의 맹세가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졌다.

온 세계의 비상한 관심과 기대속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려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한 위대한 혼연일체의 대회,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역센 기상과 불패의 위력을 온 세상에 뚜렷이 보여준 승리자의 대회였다.

지난 5월 김일성광장에 도도히 굽이쳐간 일심의 대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터치는 인민의 모습에서 세계는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를 역세계 걸어온것처럼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령도자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

는 조선의 불패의 일심단결이 야말로 핵폭탄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것임을 똑똑히 보았다.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갈 일심단결의 대화폭은 그이의 령도따라 민족자주위업완성의 최후승리를 향해 언제나 곧바로 나아갈 500만 청년전위들의 역척의 의지가 굽이쳐흐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경축 청년전위들의 화불야회에서, 조선

직업총동맹 제7차대회와 조선민중녀성동맹 제6차대회,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장에서도 장엄하게 펼쳐졌다.

단결의 진가는 평온한 날보다 시련의 나날, 운명을 판가리하는 순간에 더 뚜렷이 나타난다.

지난 8월 이 나라의 북부지역에 해방후 기상관측이래 처음보는 돌풍이 불어치고 죽음의 물갈기가 덮쳐들어 삼시에 모든것을 휩쓸어갔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사기로서 기도부터 드린다. 그러나 이 땅의 인민은 달랐다.

사름치는 몰살에 떠내려가는 사랑하는 혈육들에게조차 손을 내밀지 못하는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모심함이 든 배낭끈만은 꼭 잡고 놓지 않았고 범람하는 두만강북판에서 혁명의 만년재보를 지켜 4일간이나 사생결단의 격전을 벌린 사람들도 있었다.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보위하는 길에 서슴없이 목숨을 내낸 교원들, 나 어린 학생들도 있었다. 큰물을 피해 대피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가슴에 품어안은것은 가산이 아닌 수령님들의 초상화였으니 그렇듯 순결하고 강의한 신념앞에 외국인들도 엄지손가락을 내흔들었다고 한다.

믿음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잃어버린 집도 생기고 그 어떤 재난속에서도 살아날수 있으며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을 지닐수 있다는 절대불변의 믿음이였다.

세계가 알수도 없고 흉내낼수도 없는 이 위대한 일심단결이 있어 공화국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에 70일전투와 200일전투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고 참혹한 재난이 휩쓴 북부피해지역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는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떨칠수 있었다. 《이재여경》을 펼치고 호뜻한 과일향기를 안아오며 2016년을 승리와 영광의 해, 기적과 위훈의 해로 빛나게 장식할수 있었다.

더듬어보면 지난 한해동안 날로 장성강화되는 공화국의 핵위력앞에 공포에 질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온갖 비렬하고 악랄한 고립압살책동과 《북붕괴》소동이 최절정에 달하고 설상가상으로 흑심한 자연재해까지 대지를 휩쓸었건만 광란하는 시련의 광풍도, 모진역경도 령도자와 군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성세를 허물수 없었다.

원수님 따라 하늘땅 끝까지!

이것은 비단 어제와 오늘만이 아닌 래일에도 영원히 울려갈 이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의 맹세이다.

그 어떤 천지풍파가 휩쓸다해도 이 땅에서는 일심단결의 대하가 더욱 거세차게 흐를것이며 무한대한 그 힘에 의거하여 공화국은 강성변영의 작전도우에 새로운 승리의 화살표들을 가슴후련하게 그려나갈 것이다.

본사기자 홍범식



# 문명강국을 앞당겨 오며

인민사랑의 정치가 활짝 꽃피어나고있는 공화국에서는 올해 어떤 격동적인 사변들이 일어났는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신년사를 크나큰 걱정속에 반아안은 뜻깊은 설날 평양의 썩섬에서는 전민학습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완공된 과학기술전당 준공식이 성대히 열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몸소 과학기술전당의 준공례를 끊으시고 이곳을 돌아보시면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는 새해의 첫문을 과학으로 열었다는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온 나라에 새로운 시대속도,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마냥 일떠서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를 한껏 일신시켰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현대적으로 개진된 금집체육인종합식료공장, 풍치수려한 보통강기술에 멋쟁이건축물로 일떠선 미래상점, 전국의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공급할 학습장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현대적인 학습장생산기지로 일

떠선 민들레학습장공장,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 평양체육기자재공장, 보건산소공장, 개진된 만경대소년단야영소, 류경김치공장, 평양자라공장, 류경안과종합병원, 룡악산비누공장...

이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에는 인민을 위함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고 이 세상의 억만금도 아끼지 않는 공화국의 가장 우월한 인민적시책이 어려여다.

올해 함북도북부지역에서는 례년에 없는 큰물피해를 가지기 위한 사업이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졌다.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투에 돌릴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호소문을 반아안고 온 나라가 북부피해복구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러명거리건설장을 비롯한 주요전역들에 전개되었던 인민군군인들을 포함한 방대한 건설력량과 수단들이 북부피해 복구전선에 이동전개되어 온 나라의 지원속에 건설자재들과 식량을 비롯한 생활필수품들이 피해지역에 도착하였다.

하여 2개월간의 치열한 격전끝에 재난의 후과를 말끔히 가시고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새로 일떠선 북변천리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피해지역인민들이 기쁨속에, 웃음속에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하였다.

한지에 나앉았던 피해지역주민들은 원래 살던 집과는 대비조차 안되게 크고 번듯하게 지어진 새 집들에 입사하여 저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사회주의만세를 목청껏 웨쳤다.

올해 일찌기 떨어본적이 없는 과일대풍이 펼쳐져 온 나라에 기쁨과 환희를 더해주었다.

철령아래 고산과수종합농장에서는 물감을 들인것만 같은 빨간 사과들로 하여 마치 붉은 주단을 펼쳐놓은듯 한 풍경이 펼쳐졌다.

올해는 어딜 가나 물고기사태였다. 포구들마다에 물고기대풍으로 《바다 만풍가》 노래소리 높이 울려 퍼졌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어로공들은 하루에 최고 1만의 물고기를 잡는 기록을 세웠다.

얼마전 만선의 배고동소리 높이 울리는 어느 한 수산사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최근 며칠사이

수천의 도루메기를 잡았다는 보고를 받고 온 나라 인민들에게 회한한 물고기대풍소식을 한시바빠 전하고싶어 만사를 제쳐놓고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구내에 차넘치는 물고기비린내, 사회주의바다향기를 맡으니 만시름이 풀린다고, 정말 회한한 풍경, 기막힌 풍경이라고, 오늘의 이 기적같은 물고기잡이성공을 통하여 당정책은 곧 과학이고 승리라는것을 확증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을 받아안고 인민군대가 물고기잡이전투에서도 맨앞장에 서고 온 나라 수산사업소 어로공들이 일떠서 도처에서 신이 나는 물고기대풍을 마련하였다.

세상에는 문명과 경제부흥, 건축과 기술을 자랑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으나 공화국처럼 이 땅의 모든 재부를 근로하는 인민들을 위해 깡그리 다 바치는 나라는 없다.

하기에 올해 나날이 변모되고 흥하는 현실을 보며 이 땅의 남녀로소 누구나 기쁨을 금치 못하고 인민의 만복이 꽃피날 천하제일강국의 그날이 결코 먼 앞날이 아니라는것을 가슴뿌듯이 체험하였다.

본사기자 김춘경

# 기적같은 성과들이 다계단이며

2016년은 공화국의 군력강화에서 일찌기 보기 드문 기적같은 성과들이 다계단으로, 다발적으로 이룩된 경이적인 한해이다.

이 한해에 공화국의 핵능력은 더욱 고도화되고 핵무기를 중추로 하는 군력은 최대로 강화되었다.

1월 6일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이해의 문을 연 공화국은 련이어 적대세력의 군사적위협과 제재압살소동을 박차며 핵능력고도화를 위한 조치들을 련이어 취하였다.

우리 식 소형핵탄두의 표준화, 규격화의 실현, 탄도로켓 전투부침두의 대기권제돌입환경모의시험에서의 성공, 대출력고체로켓트발동기 이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에서의 성공,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트대출력발동기 이상분출시험에서의 성공,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또다시 대성공, 지상대지상중거리리 전략탄도로켓트 《화성-10》 시험발사에서 성공...

하루밤 자고나면 또 새로운 충격적인 시험소식이 전해지고, 이런 충격과 감동의 련속속에 공화국은 수소탄을 비롯한 각종 소형화된 핵무기들과 미국본토까지 도달할수 있는 각종 핵운반수단들도 갖춘 동방의 핵강국으로 치솟아 올랐다.

이로써 공화국은 나라와 인민, 겨레의 안전을 지키는 힘으로 능히 지킬수 있는 최강의 역제력을 갖추게 되었고 대조선제재압살소동에 미쳐달뛰던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은 공포와 전율에 싸여 비명을 련속 지르지 않으면 안되

었다. 미국에서도 《북의 핵보유의지는 확고하다. 그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도 결코 꺾을수 없다. 수소탄마저 보유한 북과 무슨 싸울수 있겠는가.》는 맥빠진 소리가 울려나왔다.

공화국이 이처럼 핵능력을 비상히 강화할수 있는 것은 위인의 탁월한 선군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뜻깊은 이해의 서막을 수소탄시험의 조패한 최성으로 열도록 장쾌한 휘젓고도 핵능력고도화를 위한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등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난 8월에는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총7대대청호쟁취운동열성자대회를 지도해주신것을 비롯하여 온 한해 수많은 인민군부대들을 찾고찾으시며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완성을 더욱 다그치도록 하시였다. 훈련에서 주재화, 현대화, 과학화를 철저히 실현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인민군대의 전투력강화에서 나서는 전략적과업들을 제시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군대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될수 있었다.

약육강식의 룬리만이 지배하는 국제정치속에서 막강한 군력을 과시하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나가는 선군조선의 경이적인 모습을 보면서 온 겨레는 높은 민족적자부심을 느끼고 부강변영할 래일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가다듬게 되었다.

주충일



# 기적과 전변으로 수놓아진 승리의 2016년

공화국의 2016년은 범상한 한해가 아니었다. 공화국의 력사에서 특기할 사변의 해이며 행성을 뒤흔든 충격과 감동의 연속이었다.

수소탄의 장쾌한 퇴성으로 막을 연 공화국의 이해는 창

조와 기적과 사변의 연속으로 흘러왔다. 자고나면 또 하나의 기적과 사변이 창조되고 1년 열두달 세인은 조선충격속에 살았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이해에 공화국에서는

령도자와 군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최대로 강화되고 청년강국의 새로운 한페지가 수록되었다.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군력강화에서도 일찌기 보기 드문 특기할 대성파들이 다계단으

로, 다발적으로 이룩되어 세계를 놀래우고 적대세력에게 끝없는 공포를 안겨주었다.

만리마의 기상이 나래치는 속에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눈부시게 변하고 발전하는 경이적인 화폭들이

펼쳐지고 화가 복으로 전환되는 기적도 창조되었으며 만복의 열매가 끝없이 주렁져 온 나라를 기쁨으로 흥성있게 하였다.

참으로 올해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병

진의 기치높이, 자강력의 기치높이 승리에 승리를 거듭해 온 공화국이다. 그 값진 열매들은 밝아오는 새해 2017년을 더욱 환희롭게 그려보게 하고 있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진행



청년전위들의 화불야회 진행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 소식에 접한 근로자들



전략잠수함 탄도란수중시험발사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 탄도로켓 《화성-10》



신형대구경방사포



새형의 반항공요격 유도무기체계



탄도로켓 대기권재돌입 환경모의시험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 호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켓용 대출력발동기시험



고산과수종합농장



류경안과종합병원



룡악산비누공장



만선의 기쁨넘치는 바다



국제축구연맹 20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1등을 쟁취한 미더운 여자축구선수들



북부피해지구에서 이룩된 전화위복의 기적

# 친미보수 《정권》의 붕괴와 파멸은 력사의 필연이다

격동과 사변의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하긴만 이 시각도 남조선에서는 잠들 줄 모르는 초불의 대하가 어둠의 뿌리를 들춰내며 더욱 격렬히 타번지고있다.

온 세상을 경악케 한 박근혜—최순실추문사건을 계기로 민심이 지퍼올린 초불은 불과 수십일만에 남조선전역을 휩쓰는 전민민적항거의 해물로 확대되어 천하의 악녀, 민족의 특등제앙거리인 박근혜역도 탄핵의 심판대에 끌어내며 그 더러운 명줄을 끊어버릴 죽음의 울가미를 바싹 조이고있다. 박근혜역도뿐아니라 《새누

리당》을 비롯한 수구보수패당도 무겁게 폭발하는 저주와 규탄에 직면하여 풍랑속의 난파선마냥 건잡을수없이 침몰하고있다.

입만 벌리면 그 무슨 《북붕괴》니 뭐니 하고 기승을 부리던 박근혜패당이 청와대등우리에 앉은채로 날벼락같은 급변사태를 맞게 되었으니 이야말로 력사의 필연이 아닐수 없다.

온 남녘땅을 통채로 뒤흔들어놓고 세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2016년 남조선 각계의 전민항쟁은 과연 무엇을 교훈으로 남기고있는가.

## 파멸의 씨앗을 잉태한 특등오작품 《정권》

오늘 지구상에는 형형색색의 정치제도와 국가정권이 존재하고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도저히 그 료를 찾아보기 어렵고 정상적인 정치론리가 통할수 없는 회귀한 유령 《정권》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남조선의 박근혜 《정권》이다.

시간이 갈수록 그 쿨위하고 더러운 내막이 속속 드러나 일파만파의 격랑을 일으키고있는 박근혜—최순실정추문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가장 비정상적인 산생과정과 해피하기 그지없는 권력구조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권》은 태어나기 전부터 불행과 파멸의 씨앗을 잉태하고있던 시대와 력사의 특등오작품이다.

이미 력사의 쓰레기통에 묻혀버렸어야 할 《유신》의 후예이며 그 어떤 정치적자질이나 능력도 없는 박근혜가 남조선에서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데는 실로 기가 막힌 사유가 있다.

원래 저능아인테다가 9살에 애비를 따라 청와대에 들어간 후 제대로 된 교육과 성장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일찌기 랑부모가 총란에 맞아 처참하게 비명횡사하는것까지 목격한 박근혜는 정치인은 고사하고 보통인간으로서, 평범한 녀성으로서의 정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한 극도의 인격장애자이며 특이한 정신병환자라고 할수 있다. 박근혜의 지능이 얼마나 낮았는가 하는것은 중학교에 진학할 당시 그의 입학시험을 위해 전해가지만 하여도 자연, 사회, 음악, 미술 등 여러 과목이었던 시험제도를 국어와 산수 단 두 과목으로 변경시켰으며 다음해부터 다시 시험과목을 원래대로 늘였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잘 알수 있다.

더욱이 청와대에서 쫓겨난 후 가족과도 일체 편계를 끊고 은둔생활을 하면서 회대의 사기협잡꾼들인 최태민일가를 유일한 보호자로 삼고 그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아온 박근혜는 극심한 피해망상증과 물취미에 빠져있던 정신적불구자였다. 오죽하였으면 보수팔통패거리들조차 《대통령》이 될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될 전형적인 성격장애환자》이고 《신문기사도 리해 못하며 지능이 겨우 말배우는 어린아이수준에 불과한 인물》이라고 비난해나섰겠는가.

하다면 이런 박근혜의 내면을 몰라서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 이 그를 《대통령》 후보로 치켜세우고 청와대안방에 들여앉혔는가. 남조선정치인들을 손바닥우에 올려놓고 살살이 들여다보며 떡반죽처럼 마음대로 주물러대는 미국은 과연 무엇때문에 이를 묵인조장하였겠는가.

그들이 박근혜년의 미숙함과 피벽함을 잘 알면서도 《대통령》으로 만들수밖에 없었던것은 수구보수떨거지들이 우상처럼 여기는 박정희의 딸이라는 류다른 간판과 최초의 녀성 《대통령》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민심을 기만하고 친미보수세력의 장기 집권을 이루어보려는 비렬한 정치적 야망과 관련되어있다. 국악무도한 매국배족과 부정부패행위로 남조선인민들의 버림을 받으며 급속히 리탈하는 보수지지층을 끌어모을 방법이 더 이상 없었던 보수패당으로서 박근혜의 어지러운 치마자락에라도 필사적으로 매달릴수밖에 없었으며 보수

《정권》의 연장을 바라는 미국 역사이를 은근히 부추기었다.

여기에 집권기간 온갖 악정을 일삼아온것으로 하여 퇴임후 법정에서야 했던 리명박패당이 저들의 정치적인전에 대한 담보를 흥정물로 삼아 박근혜의 당선을 막후지원하였다. 그들은 어용언론과 보수단체들을 총동원하여 여론을 오도하고 괴뢰정보원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을 내몰아 온갖 모략극을 다 꾸민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대통령》 선거의 개표과정까지 조작하였다. 이처럼 천하얼뜨기일지라도 얼굴따당으로 일단 들어앉혀놓고 그 배후에서 저마끔 리속을 챙기려는 미국상전과 수구보수세력의 손탁에서 박근혜는 세상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하나의 회귀한 《대통령》인형으로 빛어졌던것이다.

하지만 돼지에게 안장을 엮는다고 경마가 되는것은 결코 아니다.

제 머리로 사고할줄도 모르고 제손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으며 제발로 걸어가기도 불가능한 박근혜가 북마전같은 남조선정치판을 어떻게 움직일수 있겠는가.

결국 박근혜는 자기를 입혀주고 먹여주고 돌봐준 최태민놈의 딸인 최순

## 만고죄악으로

박근혜패당은 집권기간 력대 통치배들을 훨씬 통가하는 만고죄악을 서슴없이 저지름으로써 제손으로 죽음의 함정을 깊숙이 파으며 비참한 종말의 시계를 1년이나 앞당겨놓았다. 오늘 남조선 각계층이 박근혜가 집권한 지난 4년간을 되돌아보기조차 끔찍해하며 《〈세월〉 호 7시간과 같은 죽음과 악몽의 련속》이었다고 한결같이 치를 떨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일이다.

박근혜 《정권》이 남긴 최대 《치적》은 남조선사회를 《유신》독재시대로 완벽하게 돌려놓은것이다.

몸뚱아리는 비록 현재에 있어도 녀은 아득한 《유신》시대에 두고있는 박근혜는 청와대안방에 들어앉기 바쁘게 제년의 체질에 맞게 괴뢰정권원과 법무부, 검찰과 경찰 등 권력의 중추에 《유신》잔당들과 늑대리노복들을 들여앉히고 공안통치, 정보통치, 공포통치를 부활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진도개정신》으로 《원썬》들의 살점을 물어뜯을 때까지 놓지 말라느니 뭐니 하는 섬뜩한 독설들을 내뱉으며 줄개들을 제년의 통치에 장애로 되는 세력에게 대한 무자비한 숙청으로 내몰았다. 진보적이며 합법적인 정당, 로조, 언론들을 강제해산, 폐간시키고 반 《정부》적성향의 기미만 보여도 이잡뜯 살살이 들추며 손과 발을 묶어놓는가 하면 초보적인 생존권을 요구하여 평화적시위에 나선 주민들마저 경찰장패들을 내몰아 마구 폭행하다못해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중세기적암흑시대를 펼쳐놓았다.

이처럼 서슬무른 독재의 칼날로 온 남조선땅을 하나의 거대한 감옥, 공포와 재앙의 지옥으로 전락시킨 박근혜일당은 그 검은 장막뒤에서 수십년간 꿈꾸어오던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데 혈안이 되여 날뛰었다.

경제와 민생은 어찌되든 아랑곳없이 제 배를 불리우는데만 환장이 되여 미르재단이요, K스포츠재단이요 하는 유령회사와 재단들을 불법적인

실을 신주처럼 모시고 청와대에 《입성》하였으며 그의 조종에 따라 《대통령》가면극에 출연하였다. 현 《대통령》이 독신인것으로 하여 응당 없어져야 할 청와대의 제2부속실이 항간의 일개 아나네를 보좌하기 위해 빼졌이 존재해왔는가 하면 지어 최순실은 박근혜옆방에 제 침대까지 들여놓고 일당들과 함께 마음대로 드나들며 별의별 추악한짓을 다 저질렀다. 《문고리3인방》이라고 불리운 박근혜의 측근줄개들은 만사를 진짜 《대통령》인 최순실에게 먼저 보고하고 그 결론을 박근혜에게 전달해주는 심부름꾼에 불과하였으며 모든 판직임명과 정책결정이 최순실의 손끝에서 이루어졌다는 기막힌 사실들을 털거하자면 끝이 없다.

오죽하였으면 남조선에서 《현 정권은 박근혜—최순실공동정권》, 최순실은 《가부장적인 남편》이고 박근혜는 그의 《안해》, 《문고리3인방》은 《사촌》이라는 기상천외한 가계도까지 공공연히 나돌았는가. 지금 내외여론은 박근혜가 집권한 기간 청와대는 《국정운영의 사령탑》이 아니라 돈벌이에 미친 박근혜와 최순실에 의해 하나의 《가족기업체》처럼 운영되었으니 이런 원시적인 《공동체》는 지구상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다고 개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인류지성이 우주를 정복하고 물질문명이 최첨단을 돌파하는 21세기에 이처럼 유치하고 우매한 허깨비가 권력을 독점하고 변태적이고 해피망측한 통치를 무려 4년 가까이 지속해왔다는것은 현대정치사의 특종희비극이다.

이렇듯 가장 비정상적이고 말세기적인 불량 《정권》에 의해 남조선에서 정치는 온통 뒤죽박죽이 되고 사회혼란과 대형참사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으니 오늘날과 같은 박근혜패당의 파멸은 예고된 사태였다.

## 앞당겨 온 종말

로 나오고 재벌들을 공갈협박하여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난 후에도 사치와 향락을 누릴수 있는 엄청난 재부를 끌어모았다. 그 대가로 대기업들이 로동자들의 피땀을 보다 손쉽게 짜낼수 있도록 《성과년봉제》와 《시간제일자리제도》, 《비정규직법》과 《로동개혁 5대법안》을 비롯한 술한 악법들을 제정하거나 개악하였으며 일방적인 친재벌정책을 강압적으로 실시하였다.

박근혜역도와 그 패당들이 탐욕에 미쳐 무지막지하게 날뛰는 동안 남조선경제와 민생은 극도의 위기와 파탄에 직면하였다.

년평균경제성장률은 4년전에 비해 절반으로 떨어지고 《국가》부채는 력대 최고인 1조 1,700억US\$로 치솟았는데가 하면 중소기업들은 물론 대기업들까지 련이여 파산당하는 속에 실업자수가 무려 23%이상 증가하고 매가정들이 진 빚은 30%이상이나 늘어났다는것이 내외에 《자랑》할만 한 박근혜역도의 성적표이다.

극심한 생활난으로 하여 사랑, 결혼, 해산, 집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을 버리는 《7포세대》를 넘어 자기의 모든것을 포기하는 《N포세대》까지 생겨나고 년간자살자수가 세계 1위를 기록하고있는것이 《개탄민국》, 《망한민국》, 《헬조선》(지옥같은 남조선)으로 불리우는 오늘의 남조선실상이다.

하긴만 박근혜패당은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흠뻑처럼 인민들의 피와 땀, 눈물을 악착하게 짜내어 모은 천문학적액수의 돈을 저들의 부귀영화에 마구 탕진하였으니 어찌 민심이 분노의 치를 떨지 않겠는가.

박근혜역도는 정치매춘부로서의 남다른 자질을 한껏 발휘하여 엄청난 매국배족적범죄도 꺼리낌없이 저질렀다.

리명박집권시기에도 내외의 규탄여론이 두려워 감히 손대지 못한 세계적인 재앙거리 《싸드》의 남조선배치를 서슴없이 결정하고 미제침략군

의 영구강점을 애걸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무기한 연장시켰는가 하면 천문학적액수의 혈세를 미국산 불량무기구입과 미군유지비분담에 더 섬겨바쳐 상전의 극진한 찬사를 받았다.

오른뺨은 미국상전에게 내밀었다면 친일매국노의 후예답게 일본쪽 발이들에게는 왼뺨을 들이대며 온갖 쓸개빠진짓을 다 저지른 박근혜이다. 역도년은 남조선각계의 거센 항거와 반에도 불구하고 굴욕적인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와 매국적인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사천리로 강행처리하여 일본의 과거사부정책동과 제침야욕실현을 극진하게 도와주었다.

이처럼 외세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고 역겹게 놀아댄 반면에 동족과는 피를 물고 대결하면서 북남관계를 돌이킬수 없는 파국에 몰아넣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극도로 증대시킨것은 천추에 용납 못할 박근혜역도패당의 반민족적 죄악이다.

분렬된 민족의 정치인이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민족의 운명이나 통일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이때문에 남조선의 력대 집권자들도 북남관계개선에 일말의 관심을 표시하고 대화와 접촉의 길을 열어보려고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왔던것이다.

하지만 머리끝까지 대결악심만 차 있는데다가 돌팔이무당이 붙여넣은 《북붕괴》의 망상에 포로된 박근혜역도는 입만 벌리면 《북핵폐기》니, 《인권문제해결》이니 하고 떠들다 못해 최순실의 지령대로 개성공업지구까지 폐쇄하여 북남관계의 마지막 실오리마저 완전히 끊어버렸다. 지어 가소롭게도 그 무슨 《참수작전》, 《평양초토화》를 떠들어대며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정치군사적도발을 계속해왔다. 허바닥을 도끼날처럼 갈아세우고 《북이 핵을 포기할

## 구원의 동아줄은 어디에도 없다

를 리용하여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마저 밀어붙이고는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이루어자마자 입셋을 돌아앉고말았다. 철척같이 약속하였던 《정상회담》의 년내개최가 어렵게 되었다고 하면서 박근혜를 현 누대기마냥 차던졌는가 하면 다음기 《정권》과의 관계문제에 집중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있다.

이러한 태도는 미일상전들이 녀을 쓸모없는 골치거리로 부담스럽게 여기며 용도폐기하였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리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천하머저리인 박근혜년의 치마바람에 놀아나 대조선정책에서 참담한 실패를 면치 못한채 내외에서 고조되는 비난의 화살을 받고있는 미형정부가 그 분풀이를 청와대대녀에게 하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일이며 약속바른 일본도 그뒤를 따르고있는것이다.

박근혜패당은 미국정가에서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전략적인내》정책에 대한 회의심과 우려, 정책전환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상전의 발목을 부여잡으며 북이 《붕괴》직전에 이르렀다느니, 절대로 북과 대화해서는 안되며 제재와 압박 등 강경정책기조를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느니 하고 온갖 악담을 다 늘어놓아왔다. 그러나 마녀의 유혹에 홀리는 미국이 《고강도제재》요, 《부수뇌부제거》요하며 어리석고 무분별한 반공화국 압박소동에 매달려있는 동안 우리 공화국은 내외가 공인하는 세계적 군사강국의 반렬에 당당히 올라섰다.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 정밀화된 최첨단전략핵력추진단들을 보유한 동방의 신생핵강국인 우리 공화국의 새로운 전략적지위와 영향력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배야망을 파산으로 몰아넣고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실질적인 핵공격위협은 현실로 되고있다.

(6면으로 계속)

때까지 강력하고 실효적인 모든 제재를 다 취할것》이라느니,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자멸할것》이라느니 뭐니 하는 온갖 비방상과 독설을 뽐내대는가 하면 이 나라, 저 나라로 분주히 찾아가 반공화국제재압박공조를 집요하게 구걸하여 내외를 경악케 하였다. 나중에는 별의별 잡쓰레기들을 끌어모아 반공화국모락소동에 내몰다못해 해외에서 우리 처녀들을 집단랍치해가는 천하의 악귀같은것도 서슴지 않은 박근혜년이다.

예로써서 퍼는 퍼써서 씻기운다고 하였다. 이렇듯 남조선인민들과 온 겨레앞에 씻을수 없는 만고죄악을 저지르고도 목숨을 부지할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처럼 미련스러운것은 없을것이다.

《세월》호에 갇힌 수백의 소중한 생명들이 안타까이 구원의 손길을 찾을 때 7시간동안이나 안방에 처박혀 쭈그려박같은 상판을 쓰다듬고 머리채나 울렸다내렸다 하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인간백정을, 남조선사회를 《최순실왕국》으로 전변시키고 인민들의 꿈과 존엄을 강그리 짓밟은 박근혜역도를 청와대에서 끌어내라는 거세찬 함성이 우뢰처럼 터져나왔다.

민심의 분노가 이토록 강렬한줄은 몰랐을것이다. 그 알팍한 입술로 구미어우처럼 요설을 뱉으며 유혹하면 개, 돼지처럼 여기는 백성이 온순하게 주저앉을것이라고 박근혜는 오산하였을것이다.

대가를 치를 때가 온다는것을 상상도 못한채 천만가지 죄악을 덧쌓아온 역도년이 지금 제가 싼 똥우에 주저앉은 꼴이 되어 세상의 못매질을 당하며 숨져가고있으니 사벌귀정이란 바로 이런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 사대의존과 굴종으로 얼룩진 한해

2016년 이해가 저물어가는 것과 함께 민심의 탄핵심판을 받은 박근혜의 운명도 시사각각 꺼져가고있다.

전세계의 주목을 끌고있는 남조선의 《대통령》 탄핵사태는 특대형정치추문사건과 함께 박근혜 《정권》이 지난 수년간 저지른 온갖 악정과 죄악에 대한 준법단 단죄이고 징벌이다. 그 엄청난 죄악들은 극도의 외세와의 굴종행위로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팔아먹어온 범죄의 행적도 들어있다.

집권한 이후 이전 보수 《정권》보다 더한 친미, 친일굴종행위를 일삼아온 박근혜파당의 죄악은 이 한해동안에도 우심하게 저질러졌다.

상전인 미국의 승인과 비호가 있어야 권력의 자리도 올라갈수 있는것이 미국에 예측된 남조선의 정치실상이며 그 때문에 력대집권자들치고 친미사태행위를 하지 않은자가 없었다.

그러나 외세를 하내비처럼 섬기며 민족의 이익을 해치는 데서 박근혜는 친미사대에 이끌이 낳던 력대 남조선통치배들을 훨씬 능가하고있다.

올해에 남조선에서뿐 아니라 국제적비난과 격분을 자아낸 《싸드》배치문제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이미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

과 전문가들은 《싸드》배치가 실효성에 있어서나 비용으로 놓고볼 때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하면서 주변나라들의 경계심만 불러일으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었다.

《싸드》배치놀음은 명백히 미국의 범죄적인 동북아시아 지배전략의 산물이며 그로 해서 주변국들도 《싸드》문제에 대해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남조선인민들과 겨레를 해치는 《싸드》배치를 강행하기로 했다. 다른 때도 아니고 특대형 추문사건으로 최악의 정치위기가 조성된 때에 내외의 강력한 반대와 그로부터 초래될수 있는 위협을 무릅쓰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싸드》배비에 열성을 부리고있는것이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싸드》배치에 동의한것은 미국의 앞잡이를 주도적으로 자처하는 것》이라고 신랄히 비꼬았으며 《싸드》배치로 하여 남조선이 미국에 더욱더 종속되게 되고 미국을 위한 희생물이 될것이라고 맹비난하였다.

《싸드》배치로 남조선인민들의 생명까지도 미상전을 위해 서슴없이 제물로 바

치려는 박근혜야말로 용서할수 없는 특등사대매국노가 아닐수 없다.

굴욕적인 일본과의 일본군성노에 《합의》는 올해 첫 아침부터 사람들의 분격을 자아냈다.

과거범죄에 대해 사회와 배상은 고사하고 책임회피에 열을 올리면서 재침의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는 쪽발이 일본에게 박근혜는 치마까지 다 벗어주며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온갖 친일굴종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렀다. 사람들이 을사년의 매국역적들을 짐찌먹는 역적들이라고 비난과 저주를 퍼부어도 박근혜는 잘못된 《합의》를 찬양하면서 치욕적인 《위안부지원재단》설립을 끝끝내 강행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치송장이 된 신세에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매국협정을 빼앗기 체절하였다.

민족이 아니라 외세를 위해 등이 달아 날뛰는 특등사대매국노에 대한 민심의 분노는 하늘에 닿았고 그래서 민심은 박근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온 한해를 사대와 매국으로 얼룩지며 민심에 역행하여 온 박근혜매국역적의 수치스러운 말로는 달리는 뿔수 없는 력사의 필연이다.

엄성진



(5면에서 계속)

저들의 비리성적이고 무지몽매한 대조선강경일변도가 북을 수소란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지위에 떠밀어 준 원동력이었다는 세계의 일치한 평가앞에서 미국의 수치감과 분노가 어디로 향하였겠는가. 더우기 박근혜의 모든것을 조종한것은 사이비무당 최순실이며 결국 미국도 그의 손바닥에서 놀아났다는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이를 자인할수밖에 없는 오바마는 아마도 제손으로 제뺨을 때리고싶은 심정일것이다.

주구를 수족처럼 부려먹다가도 쓸모가 없어지면 단호히 처리해버리는것이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삼시간에 통치자로부터 범죄자로 뒤바뀐 박근혜의 비참한 처지를 두고 이번 사태발생의 배후에 화근덩어리인 박근혜를 미리 제거하려는 미국의 검은 손길이 있다는 말이 나돌고있는것은 우연치 않다.

이런 심정은 비단 상전뿐이 아닐것이다. 폭두각시에 불과한 박근혜를 상대로 그 무슨 《정상회담》이니, 협정체결이니 하며 가소롭게 맞장구를 치고 《대북공조》를 언약했던 적지 않은 나라들도 아연함과 치욕에 몸을 떨고있을것이다. 어리석고 부실한 촌아나내들에게 휘둘러 그들의 각본대로 《북인권》을 끌고들며 제재압박의 법안들을 형형색색으로 고안해냈던 유엔기구도, 그 하수인들도 저들의 우매함과 불공정성에 대하여 통렬히 반성해야 하며 응당한 수치를 느껴야 한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박근혜 《정권》창출의 《일등공신》이었던 보수언론과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 《새누리당》과 적지 않은 보수 지지자들까지도 반박근혜전선에 가담하고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

아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이 앞을 다투어 박근혜와 최순실의 어지러운 결탁관계를 밀바다까지 파헤치고 있으며 괴뢰검찰과 법원, 헌법재판소도 특대형정치추문사건과 관련한 전방위적인 특별수사, 탄핵심판에 박차를 가하면서 박근혜역도를 공격하고있다.

《박근혜친위정당》으로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아왔던 《새누리당》내에서도 박근혜하야와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터져나오고 적지 않은 친박계인물들까지 《국회》에서 탄핵안가결에 찬성표를 던져 세상을 놀래웠다.

《형광등 100개를 켜놓은듯 한 오로라(극광)를 지닌 대통령》이니 뭐니 하고 박근혜역도를 미화하며 왕벌모시듯 하던 보수기득권세력이 이처럼 돌변해나선 이유는 다른데

## 민의를 짓밟는 반역정치의 과멸은 필연

소용돌이치는 남조선정치정세는 지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있다.

불의를 용납치 않으며 부조리하고 썩어빠진 사회를 변혁하려는 각계층인민들의 대중적투쟁은 박근혜역도의 자진사퇴표명, 《국회》의 탄핵결정과 같은 극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있으며 현 《정권》은 이미 민심의 바다에 수장되었다. 지난 수십년동안 남조선에서 파도폭재자들을 반대하는 수많은 항쟁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이번처럼 지역과 연령, 진보와 보수, 계급과 계층을 초월한 수백만 대중이 스스로 초불을 밝혀들고 완강한 투쟁으로 보수집권세력을 궁지에 몰아넣은적은 일찌기 없었다.

하지만 청와대안방에 들어박힌 박근혜역도는 메아리쳐 울리는 각계층의 준엄한 퇴진명령에는 귀를 틀어막고 오직 더러운 목숨을 하루 한시간이라도 더 연장해보려고 온갖 발악을

지 않는다.

그것은 청와대를 통채로 휩싸안으며 무섭게 타오르는 전인민적항쟁의 불길에 급할대로 급해맞아 박근혜를 제물로 바쳐서라도 민심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 준엄한 심판의 화살이 저들에게 쏘리는것을 막아보려는데

계 처지가 얼마나 가혹스러웠으면 맹렬한으로 소문난 박근혜년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자괴감이 든다.》, 《피눈물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겠다.》고 가슴을 치며 하소연하였는가.

하지만 아무리 동서남북을 돌아보며 빌어보아야 역도년을 위한 구원의 손길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오직 죽음으로 력사와 민족앞에 저지른 만고죄악을 속죄하라는것이 남조선민심이 내린 최종선고이다.

다하고있다.

악질보수분자들로 무어진 법률대리인단을 내세워 제언은 아무런 죄도 없다고 다시 뻘쳐대면서 《국회》의 탄핵결정을 기각시킬것을 뻔뻔스럽게 요구하는가 하면 최순실년도 입을 맞춘듯이 재판정에 끌려나와 모든 죄과를 부정하며 오만하게 놀아대며 세간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그동안 초불의 힘에 놀리워 숨죽이고있던 친미보수세력들도 머리를 쳐들고 반격의 칼을 버리고있다.

《대통령》대리노릇을 하는 괴뢰총리를 비롯한 당국자들은 련일 《북도발가능성》이니, 《안보불안 상황》이니, 《중북세력의 배후조종》이니 하고 떠들며 여론의 이목을 판데로 돌려보려고 안간힘을 다쓰는가 하면 구우강패들은 《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

한해가 지나가고있다.

이해에 박근혜보수집권세력의 군사적대결광기는 극도에 달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었다.

올해 첫시작부터 민족의 화해와 평화보장을 위한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 특, 해, 공군 합동군사연습, 포사격훈련 등 총포성으로 도전해나선 박근혜보수패당은 2월에는 포천과 오산일대에서 미공군과 함께 공정통제사련합훈련이라는것을 사상 처음으로 벌여놓았으며 련이어 유사시 미군중원무력을 조선반도에 신속히 전개하기 위한 련합전시증원훈련이라는것을 감행하였다.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군사적대결광기는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와 합법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걸고들며 특대형도발에 미쳐날뛰는데서 극도에 달하였다.

공화국의 첫 수소탄시험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완전성공에 일흔이 빠진 박근혜보수패당은 그 무슨 《참수작전》과 《죽집게식타격》을 공공연히 떠벌이면서 지난 시기 해외침략전쟁들에서 악명을 떨친 미군의 최첨단핵타격수단들과 특수작전무력들을 끌어들이며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갔다.

극도의 북침광기에 들뜬 박근혜보수패당은 걸으로나마 《년례적》이요, 《방어적》이요 하던 기만적인 허울머저 내던지고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을 극도로 모험적인 《작전계획 5015》에 준하여 공화국의 최고수뇌부와 《제도전복》을 노린 극악한 《참수작전》을 실행하는 실동적인 전쟁수행 방식으로 강행하였다.

공화국에 대한 불의적인 기습상륙을 동반한 《북중심내륙진공작전》을 목적으로 하는 최대규모의 《쌍룡》련합상륙훈련으로 합동군사연습의 서막을 연 내외호전세력은 특수작전, 시가전, 도하작전, 《맥스 썬더》련합공중전투훈련 등 공화국 전략적중심, 중요거점들을 노린 불량난소동들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특히 박근혜호전세력은 방대한 규모의 핵전쟁연습에 진입하면서 《평양점령》과 《정밀타격》훈련 등 공화국의 최고수뇌부를 노린 특대형

## 전쟁의 불구름을 시시각각 몰아오며

도발을 련이어 감행하는 극단적인 도발도 서슴지 않았다.

올해에 감행된 남조선호전광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은 그것이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공화국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한 고의적인 도전, 계획적인 평화괴행위인것으로 하여 내외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냈다.

지난 5월 공화국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적도발책동중지를 강조하였지만 남조선호전당국의 북침전쟁광기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북남 군사당국회담개최제안이 나간 이후 북침전쟁연습을 더욱 도발적으로, 더욱 무분별하게 감행하다 못해 군부강패들을 공화국의 서남해상에 불법침입시켜 정상적인 근무수행중에 있던 공화국의 해군련락선에 마구 기관포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무장도발사건을 저질렀다. 지어 그 무슨 《참수작전》과

특수부대편성에 대해 또다시 여론화하며 공화국의 존엄과 제도를 한사코 무력으로 어찌할 야망을 드러내었다.

8월에도 남조선호전당국은 공화국을 불의에 핵선제공격하기 위한 《작전계획 5015》와 《맞춤형억제전략》의 세부내용들을 검토하고 실전에 적용하기 위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였다.

10월에는 미제침략군 해군 유도탄구축함 《스프루언스》호와 해상순찰기를 끌어들여 공화국의 최고수뇌부청사와 련변핵시설, 주요전략로케트 기지들을 순항미싸일로 《정밀타격》하기 위한 전쟁연습에 미쳐날뛰었으며 련이어 미국의 《로날드 레간》호핵항공모

함타격단을 끌어들여 조선동해와 서해에서 선제타격각본인 《대량응정보복작전》의 현실성을 검토하고 실전에 적용하기 위한 련합해상훈련을 감행하였다.

올해 박근혜보수당국이 외세와 작당하여 년중 끊임없이 벌려놓은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긴장상태가 항시적으로 지속되었으며 북남관계는 파국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지금도 남조선보수패당은 심각한 통치위기의 출로를 동족과의 군사적대결에서 찾으려는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그것은 저승길에 오른자들의 부질없는 단말마적인 최후발악이다.

극단적인 군사적대결망동으로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고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간 매국노, 역적배들의 죄악은 반드시 결산될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본부》라는것까지 내오고 《탄핵무효》와 《파괴적결》을 주장해나서고있다.

이것은 박근혜의 종말에서 저들의 과멸적운명을 예감하고있는 친미보수세력이 불리하게 번져지는 대세의 흐름을 어떻게 하나 되돌려세우고 정치적기득권을 유지해보려려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 사태의 본질과 근원을 무시해보면 앞으로의 전망은 볼보듯 명백하다.

박근혜—최순실추문사건이 세계가 주목하는 거대한 정치태풍으로 번져진 원인이 그 결과를 그대로 밝혀주고있다.

피말리는 생존경쟁에 지친 수백만의 각계각층이 두달이 되어오도록 한겨울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광장으로 매일같이 펼쳐나서도록 한 기폭제는 다름아닌 청와대와 친미보수패당이다.

그동안 보수반동 《정권》하에서 쌓일대로 쌓여온 민심의 분노와 원한은 극한점에 이르렀으며 이번 정치추문사건을 계기로 그 분노와 원한은 화약고에 불달리듯 한꺼번에 폭발하고있다.

외세에 빌붙어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특권적지위를 차지하고 근로하는 인민대중의 생존권과 존엄을 참혹하게 짓밟아온 친미보수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썩을대로 썩은 정치풍토를 갈아엎을수 없으며 자신들의 인생에도 영원히 광명이 비쳐들수 없다는것을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너무나도 사무치게 절감하고있다.

박근혜, 최순실같은 비루한 썩벌레들을 잡아없애는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구상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식민지 통치제도를 밀뿌리채 갈아엎으며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사회의 모든 악폐

를 청산함으로써 인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새세상을 안아오려는 열망은 너무나 강렬하다.

《박근혜와 부역자들을 감옥으로!》

《청소년이 앞장서서 헬조선을 갈아엎자!》

《새누리당 해체하고 재벌을 숙청하며 특권부패 청산하자!》

《우리의 초불은 꺼지지 않는다. 우리의 손으로 국민이 주인된 새세상을 만들자!》

이 시각도 남조선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스스로 울려퍼지는 우렁찬 이 모든 함성이야말로 자신들의 정의로운 지향과 념원을 끝까지 거역하려한다면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라는 단호한 결심, 투쟁의 화불로 반동통치배들에게 준엄한 철추를 안길 비상한 각성과 의지의 선언이다.

민심의 목소리를 거역하는자에게는 살길이 없으며 누구든지 정략적야심과 사리사욕을 앞세워 함부로 경거망동한다면 반드시 박근혜일당과 함께 력사의 무덤속에 처박히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민족반역과 반인민적악정을 일삼으며 추후에 용납 못할 죄악을 덧쌓아온 박근혜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안긴 오늘의 초불혁명운동은 남조선정치의 근본적변혁을 위한 새로운 장으로 이어질것이다.

이것은 부인할수 없는 력사의 필연이다.

인민이 지지하고 따르는것이 정의이고 승리이다.

민심을 거역하고 짓밟는자는 기필코 멸망하기 마련이다.

이것이 명암이 뚜렷하고 만단사연으로 가득찬 뜻깊은 2016년이 력사에 다시한번 새겨주는 철의 진리이며 엄숙한 교훈이다.

최문일

# 민주세력의 단합을 바라는 초불민심

지금 남조선에서 보수 집권세력이 최악의 위기에 처하였다.

《국회》에서 탄핵안의 통과로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죄인으로 전락되고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10%로 곤두박질한데다 친박계와 비박계사이의 개싸움질로 분당상태에 처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집권세력이 날로 강화되고있는 각계층의 반《정부》투쟁과 내부모순 등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며 그들의 형편은 벼랑끝에 선 신세라고 평하고있다.

안팎으로 고립배격당하고 심각한 통치위기에 처한 남조선보수세력의 가련한 신세는 반인민적악정이 가져온 응당한 귀결인 동시에 자주, 민주, 통일을 바라는 민심의 승리, 민주개혁세력의 단합된 힘의 승리이다.

극도의 위기감에 사로잡힌 보수세력들은 무너

져가는 권력을 지탱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박근혜는 시간을 끌면서 범죄행위를 유야무야하여 초불투쟁기운을 가라앉히고 정치적잔명을 부지해보려 꾀하고있다.

박근혜와 청와대는 10여명의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죄과를 전면 부인하는 탄핵소추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데 이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와대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탄핵심판과 《국정》조사, 특검수사에 장애를 조성하면서 시간끌기에 매달리고있다.

그런가하면 보수정치세력들은 《제3지대》를 통한 정계개편논의로 재집권을 실현해보려는 책동도 벌리고있다.

전 당대표와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박계는 집단탈당하여 《제3지대》에서 정계개편을 통한 보수세력재구합에 나서려

하고있다. 친박이 장악한 《새누리당》도 보수색이 짙은 반기문을 끌어당겨 보수 《정권》연장을 꾀하고있으며 당밖의 보수정치세력들도 저마끔 《신보수정당》 창당에 몰두하면서 여기에 《새누리당》을 탈당한 비박계파를 끌어들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있다.

여기에는 초불민심이 박근혜에게 정치적사형선고를 내리고 부패무능한 보수집단인 《새누리당》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해나섬으로써 사실상 《정권》의 붕괴는 물론이고 보수의 다음번 재집권도 어려워지게 된데 대한 보수세력의 극도의 불안감이 놓여있다.

남조선전역을 뒤덮은 초불민심은 단합된 힘으로 박근혜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그 기세로 반역무리들을 심판하고 독재 《정권》을 거어어 끝장내기 위한 공동의 투쟁에서 각

계각층이 한목소리를 낼 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지금 야당세력 내에서는 민심을 외면하고 근시안적인 당리당략에 매달려 반박근혜, 반보수투쟁에서 공동보조를 취하지 못하고 서로 대립하고있는가 하면 지어 초불민심을 흐려놓는 경향까지 나타나 각계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이것은 낡고 부패한 정치를 청산하고 새 정치, 새 생활을 요구하는 민심에 대한 우롱이고 그에 역행하는 불미스러운 처사라고 해야 할것이다.

지난 시기 자기의 정략적목적을 실현해보려는 기회주의집단, 권력야심가들에 의해 인민들의 피어린 투쟁의 전취물이 룡락된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의와 애국을 지향하는 정당, 정치인들이라면 마땅히 주의주장을 앞세우기 전에 대세를 바로 보고 그에 부응하여 힘을 합칠 것을 알아야 한다. 남조선 민심이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있다.

본사기자 김혜성

최근 박근혜당이 그 무슨 《안보위기》라는것을 운운하면서 파멸에 처한 저들의 잔명을 조금이나마 유지해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16일 서울에서 진행된 남조선미국인본 《안보회의》도 그 하나의 실례이다.

이 회의의 내용은 그 누구의 미싸일을 탐지, 추적하는 미싸일경보훈련을 《정례화》하며 《싸드》의 남조선배치를 조기추진하기로 하고 남조선일본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의 《유효성》을 재확인한것이다.

지난 21일에는 미국상전들과 공중이관을 벌려놓고 《북핵 및 미싸일대응》이라는 미명하에 미국의 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에 정례적으로 배치한다는 《공동언론보도문》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그런가하면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북의 핵, 미싸일시설을 원거리에서 정밀타격한다.》는 미명하에 《타우루스》 공중대지상미싸일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데 이어 미핵동력잠수함 《루이빌》호까지 끌어들이며 정세를 더욱 긴장격화로 몰아

가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13일에는 남조선국방부 장관 한민수가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을 찾아가 그 누구의 《전략적, 전술적도발가능성》이니, 《〈한〉 미련함방위태세로 북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북침도발책동

기를 모면하자는것이 바로 현 《정권》의 속심이다.》라고 짚어서 비판하면서 국민의 분노는 외면하고 《안보위기》를 운운하는 현 《정권》의 못된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머리 어린애도 속지 않을 서퍽자리 모락국으로 분노한 남조선민심을 우롱하려 드는 박근혜당의 치사스럽고 졸렬한 술책이야

## 서퍽자리 술책

에 대한 《미군의 협조》를 구걸하는 망동을 부리었다.

박근혜역적패당이 미일상전들과 반공화국군사적대결을 모의하고 기존 《대북, 대외정책》을 강행추진하려 하는것은 《안보위기》를 고취하여 혼란된 정국을 수습해보려는 교활한 권모술수에 불과한것이며 이미 거덜이 난 대결정책을 죽을 때까지 부지해보려는 산송장들의 발악적망동이 아닐수 없다.

이를 두고 남조선의 한 잡지는 《북의 도발가능성에 의해 안보가 위태롭다는 허위여론을 내들려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국민들의 반박근혜 투쟁과 보수 《정권》 심판열기를 가라앉혀 통치위

말로 만사사람의 비난과 조소를 받아 마땅하다.

지금 남조선의 인터넷들에는 《진짜 안보위기는 현 보수 《정권》에 의하여 조성되었다. 국민 불안 조장 말고 하루빨리 권좌에서 내려오라.》, 《안보격정 말고 제 걱정이나 하라.》, 《안보타령 그만두고 하야타령 좀해보지.》, 《누구의 안보위기인가, 순실안보위기? 근혜안보위기? 참, 우습네.》 등의 글들이 무수히 오르고있다.

이미 박근혜 《정권》은 남조선인민들로부터 사형판결을 받았다.

남조선에서 박근혜탄핵안의 《국회》통과는 그 사형집행의 시작일따름이다.

본사기자 김명성

## 《공범 황교안은 <대통령> 놀이 그만두라》

최근 남조선에서 박근혜탄핵안통과이후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오만하게 놀아대고있는 《국무총리》 황교안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터져나오고있다.

현재 《대통령권한대행》을 맡고있는 황교안으로 말하면 수십년간 검사를 하면서 진보적인 통일세력을 《보안법》에 걸려 《중북좌파세력》으로 몰아 《전과》를 올린 국우보수분자이며 탄압의 능수로 사람들의 저주와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인간주물이다.

박근혜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왔은 초기부터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자리를 타고앉아 《유신》독재자의 5.16군사쿠테타를 그 무슨 《혁명》으로 미화하고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켰으며 《세월》호참사에 대

한 수사를 가로막고 정운현 회 《국정》개입사건을 무마시키는 등 파썸와 모략에 매달려왔다.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이 《국무총리》가 된 때로부터 남조선은 인권을 유린의 란무장으로, 불안과 공포의 마당으로 더욱 전락되었으며 그때문에 황교안은 박근혜의 충실한 《햇바지》로 남조선 각계의 지탄을 받아왔다.

이로부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이미 박근혜탄핵이후 《대통령권한대행》을 맡게 된 황교안에 대해 《국민의 불신임을 받는 인물》이므로 《당분간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한다.》는것을 무총리》 자리를 타고앉아 《유신》독재자의 5.16군사쿠테타를 그 무슨 《혁명》으로 미화하고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켰으며 《세월》호참사에 대

한 경고를 무시한채 주제넘게 놀아대고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박근혜탄핵안이 통과되자마자 그는 군부에 《전군경계태세강화》를 《지시》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벌려놓았는가 하면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을 류인시키고 청와대 비서실장등에게서 《업무보고》를 받는 등 마치 제가 《대통령》이 된것처럼 행세하고있다.

뿐만아니라 황교안은 《박근혜의 마지막당부》니, 《변함없는 정책기조》를 떠벌이면서 《싸드》배치, 역사교과서 《국정화》,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 등 민심의 배격을 당한 보수 《정권》의 반역정책들을 그대로 강행하려고 날뛰고있다.

박근혜의 충실한 수족으로, 《국정》통단사건의 공범으로 락인되어있는 황교안이 이처럼 주제넘게 놀아대고있는것은 박근혜에게 맹목적으로 추종해온 자기의 범죄를 가리우고 보수 《정권》의 반역정책들을 어떻게 하나 합리화하며 역도년을 파멸의 위기에서

건져보기 위한 속내의 발현이다.

황교안의 주제넘은 망동은 각계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야당들은 황교안에 대해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의 공범자, 동반자로서 《대통령권한대행》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100가지가 넘는다고 단죄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도 《황교안은 박근혜이다.》, 《제2의 박근혜이다.》, 《공범 황교안 <대통령> 놀이 그만두라.》고 비난하고있으며 황교안과 내각의 총사퇴를 웨치면서 련속적인 투쟁을 벌리고있다.

남조선에서 특대형정치추문사건의 공범자인 황교안이 여전히 권력을 휘두르고있는것자체가 《박근혜 《정권》이든 초불민심에 대한 모독이 아닐수 없다.

박근혜의 철저한 하수인이 되어 아직까지도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마구 날뛰는 황교안은 제 처지를 바로 알고 민심의 요구를 심중히 듣는것이 마땅하다.

본사기자 류현철

남조선에서 박근혜와 최순실이 저들의 추악한 범죄행위를 전면부정하면서 어떻게 하나 탄핵을 지연시키고 더러운 잔명을 부지해보려고 최후발악하고있다.

지난 16일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답변서에서 판권범죄혐의를 전면부정하면서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의결서》를 기각시킬것을 요구해나섰으며 최순실과 안종범을 비롯한 공범자들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뻔뻔대면서 범죄행위를 모두 부인하였다.

추악하고 더러운 잔명부지를 위해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뻔뻔스러움과 철면피의 극치라 해야 할것이다. 지금 박근혜, 최순실 추문사건의 진상들이 하나하나 밝혀지는 속에 박근혜가 온갖 범죄

의 주모자, 온상이라는 것이 더욱더 명백해지고있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한갓 선무당에 불과한 최순실의 꼭두각시가 되어 《국정》을 통락하며 반인민적악정만 저지른 죄 하나만으로도 박근혜에게는 종신징역형이 차례져야 마땅하다.

바로 그래서 남조선 인민들이 것처럼 격분해하고있고 청와대를 불사르는 수백만의 초불이 오늘도 떠오르고 있는것이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자기 잘못에 대한 티끌만 한 반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자기를 정당화하는 황당한 꾀변을 늘어놓고있으며 수차례에 걸친 《대국민담화》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인정하였던 범죄사실마저도 모두 부인해버렸다.

이것은 남조선의 초불민심과 내외여론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참을수 없는 우롱이라 해

야 할것이다. 어제는 눈물을 흘리며 죄를 시인하고 이제 와서 범죄를 전면부정하는것은 인두집을 쓴 패륜아들만이 할수 있는 가증스럽고 철면피한 행위이다. 이런 자들에게는 심리도 소용없고 법정도 필요없으며 더이상 지켜볼것도 없다는것이 남조선 민심과 사회 각계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가 마지막까지 혼란을 조성하고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려 하고있다.》, 《약간의 량심도 기대할수 없는 뻔뻔함의 극치》라고 하면서 박근혜와 그 공범자들을 영원히 몰아내는 순간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하고있다.

천하무도한 범죄악당들은 저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가장 값비싼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것이라는것이 남조선민심의 웨침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박근혜가 아프리카의 농촌과 사회개발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미화분식하며 돌아친것도 바로 반기문이다.

이런자가 박근혜탄핵사태가 일어나자 언제 그를 두둔하였던가싶게 《국민이 배신을 당했다.》느니

박근혜가 아프리카의 농촌과 사회개발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미화분식하며 돌아친것도 바로 반기문이다. 이런자가 박근혜탄핵사태가 일어나자 언제 그를 두둔하였던가싶게 《국민이 배신을 당했다.》느니

문이상전을 등에 업고 권력을 차지하겠다고 새로 등장하는 미국집권세력에 겁살개마냥 꼬리를 치며 아양을 떠는 그 모습은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만을 자아낸다.

권력이라면 양재물도 서슴지 않을 반기문에게 지금 남조선의 정치계와 사회 각계에서는 그에게 《정치에 기웃거리지 말라.》, 《반기문의 말은 듣는것조차 민망스럽다.》, 《신의없는 립장과 여의도정치관에 주판알을 튕기는 기회주의적정태도에 신물이 난다.》고 하면서 그가 남조선에 들어오는것조차 반대하고있다.

재미난 곳에 범 나온다고 권력에 재미를 붙인 반기문이 자기의 더러운 야심을 차리려 한다면 그로 하여 차레지는 대가는 참혹하기 그지없을것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 《기름잡어》의 본색

올해말 유엔사무총장임기가 끝나는 반기문이 남조선에서의 다음해 《대통령》 조기선거에 나서보려고 영치를 들썩이고 있다. 매년 1월 중순 남조선에 들어가 《국민통합행보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대선》에 나설 속심을 그대로 내비친 반기문은 20일에 있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박근혜를 신뢰했으나 본인의 리더십부재로 배신을 당했다.》고 박근혜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그와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는가 하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붙어 《대선》에 나서려던 종래의 《결심》을 바꾸어 새로운 중도보수신당을 만들고 그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감투를 써보려는 속내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나아가 반기문은 미국의 지지를 받아야 《대

선》에서 승산이 있다는 속심으로부터 미국대통령으로 새로 당선된 트럼프에게 축하전화를 한다, 면담을 요청한다 하며 분주함을 피우고있다. 미국의 손탁에서 개노릇이나 한 주제에 민심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반기문이 속대우에 오른 민중이마냥 기고만장하여 《대통령》 자리를 넘겨다보고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꼴불견이 아닐수 없다. 사실상 반기문은 자기의 똑똑한 정치적주견도, 초보적인 판단력도 없는 무지무능한 시정배로서 그의 유일한 《능력》이란 바람파라 혼들리는 갈대처럼 대세를 쫓아 뜻 없다는 비렬한 권모술수와 알팎한 처세술뿐이다. 간

반기문의 체질화된 권모술수를 그대로 엿보게 한다. 자기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주는 대가로 박근혜에게 퇴임후 안전과 보수재집권을 밀약해준 반기문이 남조선에 올 때마다 《국무총리》,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새누리당》 등 보수세력들과 밀당다니며 그에게 대해 속덕공론을 벌린것은 비밀이 아니다. 국제무대에서 《유신》독재자의 《새마을운동》을 찬미해나서고

뛰니 하며 허바닥을 눌러대니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뻔뻔스럽고 속이 뻔뻔스러워 보이는 행동이 아닐수 없다. 반기문이 박근혜와 한속통인 자기의 본색을 가리우려 하면 할수록 그의 더럽고 비렬한 권모술수와 처세술만을 부각시켜줄뿐이다. 어릴 때부터 미국에 환상을 품고 미국군교사를 좇아다니며 영어를 씨벌여대며 미국까지 려행한 지독한 친미분자인 반기



# 씩은 정치를 탄핵한 2016년

이해도 저물어가고있다. 지금 사람들은 지나온 한해의 추억과 함께 새해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을 들먹인다.

하지만 남조선인민들은 아직까지도 분노와 울분의 초불을 들고 거리로 달려나오고있다.

이들은 자기들의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8차 초 불투쟁에 이어 연말에도 계속 투쟁을 벌리겠다고 한다.

남조선인민들이 지난 시기 독재권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세차게 벌여왔지만 지금까지 온 남조선 땅을 불도가니마냥 태우며 초불투쟁이 전지역적 범위에서 각계층의 투쟁으로 힘있게 벌어져온 없었다.

리승만독재 《정권》을 거꾸러뜨린 4월인민봉기에는 연 135만여명의 군중이, 군부독재자들에게 항복을 받아낸 1987년 6월인민항쟁은 연 500만의 군중이 참가하였다.

하지만 이번의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집회에는 지금까지 연 822만여명에 달하는 각계층 군중이 참가한것으로 하여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하였다.

그만큼 민심의 분노가 큰것이며 정벌의지가 강한것이다.

올해 남조선정치를 두시해보면 지난 시기와는 구별되는 주요한 특징을 찾을수 있다.

그것은 보수정치, 부패

정치를 정벌하는 민심의 힘이 그 어느때보다 강한 것이며 그러한 민심의 승리가 뚜렷한것이다.

## 1

따지고보면 남조선의 전지역을 휩쓸고있는 투쟁은 박근혜개인에 대한 분노만이 아니다.

민심을 외면한 정치, 부패정치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다.

보수정치는 올해에 들어서서 이미전에 민심으로 부터 심각한 경고를 받았다.

그것이 바로 올해 4월에 진행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대참패이다.

20대 《총선》은 정치가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바로보지 못한 《새누리당》은 민심이 쏙대어 올라간것처럼 기고만장하여 과반수의석은 문제없다고 장담하였다.

그러나 선거는 집권여당의 대참패로 끝났다.

이로써 16년만에 남조선의 정치구도는 《여대야소》로부터 《여소야대》로 전환되고 《국회》원내 제1당의 위치도 여당에서 야당으로 뒤바뀌게 되었다.

상상을 초월한 이러한

변화는 남조선정치계와 언론들을 크게 놀래켰다. 20대 《총선》의 결과가 이렇게 된것은 한갓 우연이 아니다.

민심을 외면한 정치, 썩을대로 썩은 박근혜정권에 대한 남조선민심의 준엄한 심판이었으며 응당한 귀결이었다.

현실적으로 남조선에서 친미보수세력들이 집권하여 실시한 썩은 정치, 부패정치로 말미암아 많은 사고들과 재난들이 연이어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박근혜가 집권하여서 만도 특대형인재인 《세월》호대참사를 비롯하여 메르스사태, 각종 화재사고, 《돌고래》호가 전복되는 등 사고들이 매일 매 시각 연발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였다.

이 모든것은 결코 불가피한 자연사고가 아니었으며 박근혜같은 악녀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이 당하는 필연적인것이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의 문턱에서,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한숨과 눈물로 온갖 부정과 악만이 차넘치는 이 사회를 저주하였다.

반면에 보수집권세력은 어떠하였는가. 그들에게 있어서 국민들이 필요할 때만 필요한 우산과 같이 선거철에 더 많은 지지표를 받아낼 때에만 필요할뿐이다.

보수집권세력들에게 있어서 《민중은 개, 돼지》에 지나지 않았다. 인민들이 당하는 불행

과 재난은 안중에 없이 오직 집권자의 손발이 되어 파쇼독재와 반인민적악정, 동족대결소동에만 혈안이 되어 날뛰던 《새누리당》이였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이 《북인권법》과 《레보방지법》과 같은 동족대결의 시한탄을 《국회》에서 강압통과시키고 파쇼적인 《로동악법》 채택에 극성을 부렸지만 저들의 무능과 무책임의 산물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법안》 채택에는 온갖 방해를 놓아 원성을 산 사실은 잘 알려진것이다.

남조선사회전체를 인간세상이 아닌 지옥으로, 《헬조선》, 《망한민국》으로 만들어놓은 보수집권세력들은 변변한 일자리마저 없어 고공폭성과 시위로 초보적인 생존권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본체만체하고 저들의 탐욕과 사리사욕을 위한 추악한 권력싸움질에만 매달렸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올해 벽두부터 사람들의 귀청을 소란스럽게 한 보수집권세력내에서의 개싸움질만 봐도 그렇다.

민심과는 거리가 먼 《전략공천》이나, 《완전국민경선제》나 하는 따위의 공리공담을 일삼으며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보수집권세력의 내부싸움은 그야말로 먹이를 두고 으르렁거리는 승냥이무리를 연상시켰다.

민심이 이런 보수세력에 대해 환멸을 느끼는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이다.

민심은 거짓말쟁이, 정치협잡군들을 제일로 증오한다.

말끝마다 《국민행복시대》니, 《복지》를 운운했지만 도대체 돌아온 결과물은 무엇인가. 더한 악몽과 죽음, 그로 인한 심리적압박과 피

로움뿐이였다. 《희망의 새시대》니, 《국민행복시대》니 하며 화려한 《공약》들을 내세워 권력을 차지하고는 언제 그랬나싶이 수염을 쓸고 나앉아 제 리속채우기에 여념이 없는 보수집권세력들이야말로 사기와 협잡의 능수이며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범죄집단이다.

그래서 민심은 보수집권세력에게 20대 《총선》을 통해 패배라는 심중한 경종을 울린것이다.

## 2

《20대 《총선》은 《새누리당과피선거》로 불리울만큼 무자비했다. 박근혜의 《국정》운영방식, 당청관계, 《새누리당》내 차기 《대선》구도까지 뿌리에서부터 뒤흔들었다.》

20대 《총선》에 대해 분석한 남조선잡지의 글이다.

보수집권세력은 제 집안을 송두리채 흔들어놓은 지난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의 경고를 심중히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총선》이후 보수집권세력은 민심의 경고를 외면하고 또다시 정치협잡에 매여달렸다.

보수집권세력이 20대 《총선》이후 허수아비검찰과 경찰을 내세워 《국회》의원당선자 100여명에 대한 사상최대의 《선거법》 위반수사놀음을 벌려놓고 선거결과를 뒤집어보려고 파렴치하게 놀아댄것은 민심의 경고에 대한 도전이였다.

오죽하면 남조선야당과 사회 각계는 박근혜를 피수로 하는 보수집권세력의 이러한 행위를 두고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다.》, 《악속과 신뢰를 저버린 파렴치의 극치》라고 격분을 금치 못해하였겠는가.

보수집권세력의 망동은

참고참았던 민심의 분노를 다시금 폭발시켰다. 바로 이러한 때 최악의 부정부패사건이며 특대형정치추문사건인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이 터졌다.

보수정치가 얼마나 썩은 정치인가 하는것은 한갓 선무당에 불과한 《아줌마》에게 넋과 혼을 다 빼앗기고 《국정》을 통렬하고 청와대에 틀어박혀 다 늙어빠진 제 몸치장이나 하며 파쇼와 독재, 부정부패행위에만 광분한 박근혜의 죄행들만 봐도 심분 느낄수 있다.

그나마 최근시기까지도 다 드러나지 않은 부정부패의혹들이 계속 터져나와 사람들을 경악시키고 있다.

이번에 터진 정치추문사건은 썩어빠진 보수정치, 부패정치의 일면이 터진것이다.

부정으로 태어나고 부패로 살찌는것이 바로 보수세력이다. 그 부패는 비단 오늘에 와서 생긴것이 아니다.

리승만, 박정희가 권력을 비법강탈한 그때로부터 이어져오고 끊이지온 것이다. 상처가 깊으면 언젠가 터지기마련이듯이 그때로부터 썩어온 부패정치가 이제는 더는 수습할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게 된것이다.

특등범죄자인 박근혜를 《준비된 녀성대통령》이라고 극구 추어올리며 그의 충실한 찾바지가 되어 동족대결과 파쇼정치의 적극적인 실행자로 사람들의 저주와 규탄을 받은것이 바로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이다.

박근혜는 보수의 얼굴이며 박근혜이자 《새누리당》, 《새누리당》이기에 박근혜추문사건이 터진 다음에도 보수집권세력들은 《박근혜패막이》가 되어 박근혜를 옹호하기에 여념이 없었고 현재까지도 송장같은 박근혜를 다시 내세워보려고 최후발악하고있는 것이다.

민심이 보수집권세력들을 박근혜의 공범자, 부역자로 락인하고 《박근혜탄핵》과 함께 《새누리당해체》를 요구하고있는것은 당연한것이다.

특대형추문사건이 보여 주듯이 보수집권세력은 사람들이 죽건살건 오직

탐욕과 사리사욕을 위해 민심을 외면한 자기자신만을 위한 《정치》만을 해왔다.

사람들은 《보육대란》, 《물가대란》으로 아우성인데 보수집권세력들은 저들의 봉급이나 울리는데 열을 올리고 기업체들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걷어들이며 골프나 치러다니였다.

이런 썩은 정치하에서 어떻게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이 더욱더 열락되지 않으며 남조선이 《자살왕국》, 《실업왕국》이 되지 않을수 있겠는가.

그래서 더는 참을수 없는 민심의 울분과 분노가 마침내 터져 거대한 초불바다가 펼쳐지고있는 것이다.

아무리 때려도 내려가지 않는다면 《콩크리트지지를》이 물먹은 담벽처럼 맥없이 주저앉았으며 확고한 보수집안이라고 하던 경북 대구지역에서도 《새누리당》의 상여가 나랏고 련일 반박근혜투쟁이 벌어지고있다.

뿐만아니라 성별, 직위, 신앙, 생활수준의 차이를 막론하고 각계층의 군중들이 《박근혜하야》, 《《새누리당》 해체》라는 공동의 구호를 웨치면서 초불시위를 매일같이 벌리고있다.

남조선민심의 이러한 거대한 힘에 의해 박근혜 탄핵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우세로 통과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박근혜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새누리당》에 대한 탄핵이고 썩은 정치, 부패정치에 대한 탄핵이다.

민심을 외면한 보수정치, 부패정치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것은 피할수 없는것이다.

야당은 비롯한 정계는 물론 남조선의 사회각계는 《국민의 힘으로 탄핵이 가결됐다.》, 《국민이 이겼다.》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민심은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썩어빠진 친미보수정치의 완전한 종말을 위해 투쟁을 계속하고있다.

권력이라는 배를 띄울수도 있고 뒤집을수도 있는것이 바로 민심이다.

민심을 외면한 정치는 앞날이 없으며 보수정치, 부패정치를 정벌하는 민심의 힘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준 저물어가는 남조선의 2016년이다.

본사기자 황진옥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정부》가 권선력 대선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불법사찰을 했다고 하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해나섰다.

이보다 앞서 15일 남조선 《국회》의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전 《세계일보》 사장 조한규는 청와대가 대법원원장을 비롯한 사법기관 고위인물들의 흠집을 여러용할 목적밑에 정보원을 동원하여 지난 2013년말부터 2014년초까지 불법사찰을

감행한 사실에 대해 폭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대법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일제히 론평, 기자회견을 통해 《군부독재시기에나

불수 있었던 정보사찰행위》, 《권시장재판에 대한 사찰이 사실이라면 야당탄압이며 광역단체장의 발목을 잡는 중대범죄》, 《사실상 《유신》 독재의 부활이 립증되었다.》고 준렬히 규탄하면서 박근혜를 즉시

탄핵시킬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돌아보면 박근혜가 정대법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을 탄압한것은 신동히도 제 예비를 방불케 한다.

지금으로부터 44년전인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한 달후에는 《유신헌법》이

라는 《개정헌법》을 조작성한 박정희역도는 12월 27일 그것을 공포함으로써 자기 1인파쇼독재와 장기집권체제를 《헌법화》하여놓았다.

이 《10월유신》이라는 것을 날조하는 주동역을 배후에서 담당한것이 바로 악명높은 중앙정보부였다.

《10월유신》후 중앙정보부가 더욱 날짐으로써 남조선은 더욱 무시무시한 공포의 도가니로 화하

였다.

《유신》독재자 박정희의 죽음으로 막을 내렸어야 할 《유신》독재시대가 오늘 박근혜에 의해 부활되었으며 사법기관들

에 대한 불법사찰행위는 이를 증명하는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에 폭로된 사법기관에 대한 불법사찰행위를 두고 남조선인터넷들에는 《사법기관까지 통제하려고 한 박근혜의 독재자적인 행태에 경악

을 금할수 없다.》, 《사법부사찰은 《국기문란》행위이며 내란죄로서 마땅히 처벌되어야 한다.》 등의 비난글들이 차넘치고있으며 남조선 각계

는 이번 사건이 탄핵리유에 추가할 문제가 아니라 별도로 수사해야 할 중대범죄라고 하면서 박근혜를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격분을 터치고있다.

바보난 청와대것들이 《사실무근》이라느니,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을 비롯한 판원자들이 해임

되었기때문에 《확인할수 없다.》느니 하고 변명하고있는 반면에 이번 사건의 직접적당사자라고 할수 있는 정보원것들은 썩소리도 못하고있는 형편이다.

제반 사실들은 박근혜가 중앙정보부를 내세워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고 사소한것이라도 파쇼통치에 장애가 되면 가차없이 처형하던 제 예비와 조금도 짝지 않을 공포정치, 폭압통치를 일삼아왔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철진